

철도안전정보 유형에 관한 고찰

이인수*, 김종기**†

초 록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방식에서 잠재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사전적·예방적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철도안전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 철도안전정보는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부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안전정보의 체계화 부재, 활용실적 저조, 수집범위 제한적 등 과학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철도안전정보에 대해 교통·항공·해양 분야의 안전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철도안전정보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수집해야 할 철도 안전정보 유형 및 철도안전정보관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신저자: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철도전기융합학과(jkkim1@dyu.ac.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철도안전처

** 동양대학교 철도대학 철도전기융합학과